

# “창작의 코드는 속죄·재생·화해”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이연초 작가 두번째 소설집  
‘보스니아 레드’ 출간  
생의 의지로의 ‘빨강’ 그려



이연초 작가

“나라는 사람의 글 쓰기가 그동안 모두 ‘속죄’, ‘재생’에 모아졌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이연초 작가는 그동안 창작했던 작품에 대해 그렇게 말했다. 소설가는 본질적으로 삶의 부조리와 불의함 그리고 내면에 깃든 슬픔에 임 같은 것을 풀어낸다. 물론 새로운 관점과 기법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를 직조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을 둘러싼 문제로부터 창작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연초 작가는 “속죄와 재생은 나를 지배하는 중요한 코드였다”며 “발가벗겨지는 느낌이 드는 이런 식의 소설쓰기를 왜 하냐, 가끔은 머리를 쥐어뜯고 싶은 때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화해”를 청하고 싶은 것이 내 소설쓰기 방식이었던 것 같다”며 “다음 작품집을 낼 때는 칼날을 제대로 버려야겠다”고 웃었다. 이 작가가 두 번째 소설집 ‘보스니아 레드’ (문학들)를 펴냈다. 지난 2015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천화’가 당선되면서 창작활동을 시작한 그는 이전에 소설집 ‘그 여자, 진선미’를 발간한 바 있다. 그는 조용한 성품 탓에 자신을 많이 드러내지 않는다. 모임이나 행사 때도 있는 듯 없는 듯한 자리에 가만히 있을 뿐이다.

첫 작품집을 펴낸 지 5년이 지나 두 번째 소설집 출간 소식을 전해온 작가는 “눈 앞의 현실에 전전긍긍하느라 5년이 후딱 갔다. 그 사이 돌봐줘야 할

있다. 작품집 전체 제목인 ‘보스니아 레드’는 보스니아 참상, 나아가 이념이나 사상, “사람을 죽이는 이념, 피의 레드를 상징”한다고 작가는 부연한다.

“그 빨강이 삶, 생의 의지로의 빨강으로 이행되는 걸 그리고 싶었다”는 말에서 작가가 이번 작품에서 상징하고 있는 일종의 주제의식 같은 것이 대략 가능해졌다. 아마도 저자가 꿈꾸는 레드는 ‘생명의 레드’, ‘혁명의 레드’쯤 될 것 같았다.

“아시다시피 6.25 전쟁은 미소 강대국의 대리전이었지요. 1992년의 참혹한 보스니아전쟁도 엄밀하게 말하면 그 연장선상이라고 봅니다. 보통사람들이 일으킨 민족 간의 전쟁이라기 보다는 소수의 권력탐욕가들에게서 비롯된 것이라 견해에 공감해요. 남과 북 양쪽에서 버림받은 남부군 유격대들의 삶을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데, 빨치산의 노래가 보스니아에서 건너왔다는 사실에서 저는 보스니아에 애정이 갔어요.”

김영삼 평론가도 “소설 속 인물인 수민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나치와 싸웠던 유교연방의 빨치산들이 불렀던 독전가가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러시아 ‘아무르 강의 파르티잔’들을 거쳐 한반도 지리산 남부군의 빨치산들에게 ‘아무르 빨치산의 노래’로 전승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낸다”고 평한다.

갈수록 소설 쓰기가 어려운 시절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소설을 쓰는 것은 “사람이 뺨만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쩌면 “노래나 무용, 운동 등과 같은 것인데 문학이 좀 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다.

“문학은 저 자신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빛과 같은 것 같아요. 소설쓰기를 통해 나를 알고 사람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늙어서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현재 작가는 ‘아시아문학 책임기’ 모임에 나가며 창작공부를 하고 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지만 그 모임을 통해 문학적 에너지를 받곤 한다. 인터뷰 말미에 작가는 “수룩된 ‘영희에게’는 친구 ‘큰 영희’에게 보내는 헌사”라고 밝혔다.

한편 장흥 출신 이 작가는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했으며 2011년 목포문학신인상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 출신 오성인 시인 ‘내일의 한국작가상’

정우신 시인과 공동 수상...아름다운 작가상에 안현미 시인



펴냈다. 작가회의가 주관하는 제22회 ‘아름다운 작가상’에는 안현미 시인이 선정됐다. 젊은작가포럼이 주관하는 아름다운 작가상은 젊은 작가들이 선배들에게 헌정하는 상으로 남다른 의미가 있다.

광주 출신 오성인(사진) 시인이 한국작가회의(이사장 윤정모)가 수여하는 제8회 ‘내일의 한국작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작가회의는 2일 내일의 한국작가상 수상자로 오성인 시인과 정우신 시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내일의 한국작가상은 작품활동에 매진하는 한편 사회적 실천, 헌신에 열정을 다하는 젊은 작가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오 시인은 지난 2013년 ‘시인수첩’ 신인상으로 창작활동을 시작했으며 시집 ‘푸른 눈의 목격자’, ‘어디로 갑니까’ 등을 펴낸 바 있다. 대산창작기금과 나주문학상을 수상했다.

오 시인은 소감을 묻는 질문에 “문단에 훌륭한 선배들이 많은데 과분하게 이 상을 받게 돼 감사하면서도 조심스럽다”며 “앞으로 지역의 문학적 미래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치열하게 시를 쓰고, 시정신에 부합하는 사회적 실천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우신 시인은 ‘현대문학’으로 등단했으며 시집 ‘비금속 소년’, ‘내가 가진 산책길을 다 줄게’ 등을

또한 작가회의는 22회 ‘내일을 여는 작가’ 신인상에 시 부문 ‘온몸’ 외 4편을 투고한 안성은 씨, 동시 부문 ‘딱, 딱, 딱, 딱’ 외 4편 응모한 박이후 씨, 동화 부문 ‘할머니의 패션쇼’를 투고한 서서희 씨를 당선자로 뽑았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3일 오후 4시 서울시 마포구 루프(홍남빌딩)에서 열린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에 月 50만원

270명에 전승 활동 장려금...보유자·보유단체 지원금 인상도



지난해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공연 모습.

/연합뉴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들이 안정적으로 전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수 이수자에게 매달 50만원씩 지원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현행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가운데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에게는 전승 활동에 필요한 지원금이 매달 지급돼 왔다.

그러나 전승자의 약 95%에 해당하는 이수자들은 별도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이수자가 된 이후 전승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종목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학교의 추천을 거쳐 활동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종 대상은 이달 중 국립무형유산원이 검토한 뒤 270여 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 이수자는 2년 주기로 선정되며, 이달부터 앞으로 2년간 매달 50만원씩 지급받는다. 활동 장려금은 해당 종목의 전승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에 지급하는 지원금도 상향한다.

올해부터 보유자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보유단체는 월 360만원에서 38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 전승교육지원금을 받는다.

별도의 보유자가 지정되지 않은 자율전승형 단체는 30만원 늘어난 580만원씩 받는다.

무형문화재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돼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나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등을 일컫는다. /연합뉴스

# “영암의 문화·예술자원 활용해 관광 생태계 구축”

영암문화관광재단 새해 설계

‘국화축제’, ‘달빛축제’, ‘왕인문화축제’, ‘GMO 사업’, ‘강해영 프로젝트’...

올해 영암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전고필·재단)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문화콘텐츠 사업들이다.

지난해 6월 출범한 재단은 반년간 다채로운 문화·관광사업을 추진,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왕인문화축제’는 왕인박사의 학문과 업적을 기리고 계승한다는 취지에서 매년 봄 개최되고 있다.

작년에는 ‘K-컬처의 시작, 왕인의 빛’이라는 주제로 진행했으며 새해에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강진, 해남, 영암군의 관광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강해영 프로젝트’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영암 로컬자원인 국화를 이용한 ‘국화축제’와 디지털 파티, 영암 수제맥주 시음 등을 결집인 ‘달빛축제’도 새해 행사를 계획 중이다.

재단은 지난해 물불이장 ‘월출산기찬랜드’ 운영 및 지원으로 이목을 끌었다. 최근 16주년을 맞이한 월출산기찬랜드는 일평균 2000여 명 피서객이 폭염을 피했으며, 입장료 및 수익 일부는 지역사

회에 환원하기 위해 연말 어린이뮤지컬 등을 영암읍, 삼호읍에서 개최했다. 또 생대, 지리, 기후, 정원, 치유라는 5가지 주제로 ‘5인의 자연예찬’ 인문학 강의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기후위기 이슈를 부각시키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기후행동 1.5°C’, 지역예술인 역량 강화사업인 ‘영암예술기획 학교 YAP!’ 등을 운영했다.

영암문화관광재단 천동선 PD는 “새해에도 로컬 문화관광, 예술자원을 활용하는 국화축제, 달빛축제 등을 개최해 지역민의 관광 생태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류민 기자 rubi@



**함께하는 100년 동행**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초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영역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지평지점 062)381-8212~3	동문지점 062)513-8521~3	동문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터지점 062)361-4472~4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